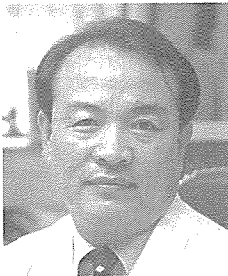




치료의 성패는 치료시기가 좌우한다



白南善
(원자력병원장)

암

은 1백조개의 세포로 구성된 우리 몸의 단 1개의 세포에서부터 시작되는 악성질병이며 약 2백70여 종류의 암이 발생된다. 암 세포의 발생동기는 정상적으로 성숙단계에 있는 미숙세포나 이미 성숙된 정상세포가 여러 가지의 요인들(발암물질) 즉, 음식물을 포함한 자극성 환경물질, 화학물질(담배나 자동차 배기가스 등), 지속적인 물리적 자극, 방사선, 바이러스, 암유전자 등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자극이 되어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하여 발생되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

강패세포가 세력 확대

인체를 한 국가로 비유한다면 한개의 암세포는 처음에는 강패처럼 자기 세력을 넓힐 때까지는 한두사람씩 끌어들이면서 자기의 패거리 숫자를 주

위와 별 시비 없이 늘리다가 어느 정도의 숫자 이상이 되면(암세포 숫자를 비교하면 10⁹개=10억개) 자기 주위의 정상조직과 싸우면서 주위조직을 점차 침범하여 세력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신체는 암조직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때 무게는 1그램 정도이다. 국가 사회는 각자(하나의 세포) 자기 위치의 전문(장기)에 따라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자기 전문(인체로 말하면 간, 심장, 위 등)이 아닌 것은 참견을 하지 않는데 이 암세포들은 처음 시작한 자기주위에서 정상세포들이 굴복하면(침윤)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게릴라 전법을 사용하듯이 핏줄(혈행성 전이)이나 림프액에 침입하여(림프절 전이) 암이 시작한 곳에서 멀리 떨어진 간, 허파, 뼈 또는 뇌 등에 침입하여 다시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결국 반란군으로 변하여 국기를 전복하듯이 몸 전체를 망쳐버리게 되어 죽음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강패에서부터 반란군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경찰과 군인을 보강시키며 탄환과 폭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무기도 써야 할 경우가 있다(방사선 요법, 항암제 사용, 수술요법 등). 강패 하나가 돌로, 돌이 넷으로 이렇게 배로 증가하는 시간을 배증(摺疊시간, doubling time)이라고 하며, 같은 폐암이라도 병리조

직의 성질에 따라 8일에서 7백63일까지 암세포의 증식속도에 차이가 있다.

정상세포는 자기가 태어나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언제 죽게 될 것이라는 출산과 사망(Apoptosis=Programmed cell death=예정된 세포사멸시간)의 계획을 가지는 반면 암 세포는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계획도 없고 자기의 할 일(기능)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얼마만큼 자랄 것인가 예정도 없으며, 남의 일에 참견하고 싸우고 화학무기(독=Toxin)를 사용하면서 주위 조직의 방위벽을 깨부수면서 계속 공격하는 성질이 있어 연합군(여러 가지 암 치료법들)의 도움이 없이는 결국 사망을 초래하게 된다.

즉 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받으면 완치될 수 있으나 게릴라나 반란군으로 되었을 때(진행된 암)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야 하므로 적군과 아군의 피해가 크며 때로는 적군과 아군이 전부 사멸(사망)하게 된다.

10명중 4~5명 완치 가능

이러한 이유로 암은 아직까지도 가장 무서운 불치병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이 불치병이라는 악명이 점차 퇴색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1940년대 최초로 항암제가 사용되고, 방사선 치료기술이 발달되고, 그 후 지속적인 새로

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다.

암 환자 10명중 4~5명은 완치가 가능하며 만약 조기 진단하여 조기 치료하면 90~100%까지 완치시킬 수 있다. 최근에는 방사선진단법, 내시경진단법, 초음파검사법, 전산화단층촬영법, 양전자단층촬영법, 조직생검법 등이 발달되어 진단 적중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 '암은 치유될 수 있는 병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다.

운 수술기법의 개발과 최근 사용되기 시작한 면역요법제 등의 다학적 병용요법(여러 가지 치료법을 함께 병행하는 방법)으로 최근에는 암환자 10명중 4~5명은 완치가 가능하며, 만약 조기 진단하여 조기 치료하면 90~100%까지도 완치시킬 수 있다.

내시경·초음파 등 진단 다양

사실 암은 조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조기에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암의 초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몸에 깨름직한 증상이 있을 때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최근에는 방사선진단법, 내시경진단

법, 초음파검사법, 전산화단층촬영법, 자기공명전산화촬영법, 양전자단층촬영법(PET)과, 종양표지자를 찾기 위한 혈청검사법 및 세침세포검사법, 조직생검법 등이 잘 발달되어 진단 적중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세계보건



유방암 수술 후 우측 흉부 및 경부에 재발된 모습

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암 환자의 3분의 1이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가능하며, 3분의 1은 적극적인 치료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암을 사형선고와

같은 개념의 불치병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나날이 발전하는 의술을 외면하는 소치의 잘못된 개념이다. 현실적으로 암은 손댈수록 나빠지고, 항암제는 독성만 있어 인체에 해만 준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현대의술을 외면하고 비과학적인 방법인 미신과 종교에만 의지한다든지,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민간요법에만 의지하여 고쳐보려는 잘못된 치료법의 선택이 많은 환자들의 생존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는 것을 필자는 너무 많이 보아왔다. 물론 현대의학으로도 모든 암 환자들이 다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년 이상 암 환자의 치유에 종사해왔던 본인으로서 먼저 과학적

인 현대 의술로 치료를 받고, 종교의 정신적인 기도와 도움, 그리고 좋은 섭생법을 병행한다면 암이 완치될 확률은 훨씬 높아져 '암은 치유될 수 있는 병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⑤7